

부처님의 딸들

국경·종교의 벽 허문다

7월 11~18일 대만서 제7차 국제불교여성대회

국제불교여성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Women), 일명 '붓다의 딸'(Sakyachita)은 '선여인(善女人)-세계의 교량'을 주제로 7월 11~18일 대만 타이베이 화범대학에서 제7차 국제불교여성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7차 대회의 핵심어는 '어떻게 지구촌 여성들이 상호협력해 잠재력을 발휘할 것인가'이다. 따라서 이번 대회는 국경과 문화, 종교영역을 넘어선 교류를 통해 예전보다는 더욱 적극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데 공감하고, 여성 불자들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낼 방안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10개 소주제 선정 분과별 토의

세계 각국의 여성 불교학자와 수행자, 사회운동가들이 다양한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이번 대회는 10개 소주제를 갖고, 분과회의를 열어 논의의 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소주제는 △세계의 불교 여성에 대한 이해 △대만 불교계의 여성에 대한 이해 △불교 전통간의 대화 △세계 종교간의 대화 △수행과 일상의 실천 △불교학과 수행 △세대간의 대화 △상호이해와 중생구제 △전통과 현대 △남녀간의 상호이해 등이다.

이번 행사는 국제불교여성협회와 화범대학이 공동주최하고 국립대만대학 불학연구소, 화범문교기금회, 보리문교기금회가 후원했다. 11일부터 개막행사(대만대학)와 제1회의(화범대학)가 열리고, 12일부터 16일까지는 각종 불교전통의 소개 및 좌선, 논문발표, 분임토의 등이 진행된다. 17일부터는 폐막식에 이어 성지순례가 진행된다.

나라별 여성불교 현황

비구니 승단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주로 동북아시아 대승불교권으로 한국 대만 일본 베트남 등이다. 대부분의 여성 수행자들은 남성 수행자들에게 의존상태에 있거나 통솔 지휘하에 있다. 서양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적극적인 서양 여성들이 각 나라를 직접 방문, 전통과 수행법에 대해 공부하고 체험하면서 가장 많이 귀의한 곳이 티베트 불교이다. 부분적

활화하고 있는 나라에서 비구니 승단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여성 출가자들은 이제 대승불교를 체험 비구니 승가를 세워 사회를 지도하는 입장으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하며,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그 가운데에서도 사회 위상이 높고 비구니도 선방에서 수행까지 할 수 있는 한국불교는

네팔 등 전통 불교국 비구니 승단 없어 비구니 선방 운영 한국 동경의 대상

으로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한국 일본 등에도 귀의하였지만 그 숫자는 미미한 편이다. 동남아 불교는 대부분 부처님 초기 가르침을 계승해 계율이 엄격하며, 심지어는 비구니 승단도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고수하려는 입장이다. 비구니 승단이 없는 곳은 네팔 인도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대부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불교국가들이다. 오히려 서양 비구니들은 한국 대만 등을 통해 비구니계 수계를 받아오고 있는데, 불교를 생

그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키아 디타가 조직된 후 많은 출가 수행자들이 대만, 한국 등 대승불교권에서 비구니 수계를 받아 갔으며, 공부와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여성 수행자가 없고 캄보디아는 오랜 전쟁과 가난으로 지원자가 너무 많다. 태국은 비구 스님에게 정부가 지원을 하지만 통제와 간섭이 있으며, 여성 수행자에게는 보조를 해주지 않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고, 정보도 부족한 형편이다.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ddhist Women
Lumbini Nepal February 11-17, 2006
WOMEN AS PEACE MAKERS:
SELF FAMILY COMMUNITY WORLD



2006년 2월 11~17일 네팔 룸비니 고타미사원에서 개인, 가족, 사회, 세계에서 평화를 조성하는 여성'이란 주제로 열린 제7차 사키아디타대회. 중국대 교수인 해주 스님과 운원 스님 등이 참석, 논문을 발표했다.

佛法 통한 세계평화 여성역할 강화 모임

사키아디타란

국제불교여성협회 즉, 사키아디타의 '사키아'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의미하고, '디타'는 밤이로 딸들이라는 뜻이다.

사키아디타는 남방 불교권인 스리랑카의 재가 여성 라자니, 태국의 불교학자 차유만 카빙심과 독일 출신으로 스리랑카 불교에 귀의한 비구니 아이야 케마, 미국 출신으로서 티베트 불교에 귀의한 렉시 쏘모 등에 의해 1987년 2월 부처님의 성도지인 인도의 보드가야에서 결성됐다.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으로 세계평화 증진, 여성불자들의 정보교환체계 형성, 다양한 불교전통사회의 화합과 이해증진, 여성의 교육과 수행시설의 개선과 개설, 불교에서 승가의 계율과 여성의 역할 연구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시작된 모임이다. 특히 서양의 비구니들과 비구니 승단이 없는 남방 불교권 여성 불자들은 구족계를 받은 비구니 승단을 설립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사키아 디타 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며 현재 회장은 스리랑카의 여성 불자인 라자니이고, 부회장은 일본 여성학자 코코이다. 주소 = <http://www.sakyadhita.org>

한국의 비구니 승단

현재 조계종의 스님은 약 1만 2천여명이며 그중 절반 가량이 비구니이다. 비구니 종단인 보문종 등을 포함하면 7천여명에 이른다. 매년 안거를 치는 선원만 전국에서 87곳으로 1700여 남자들이 정진한다. 이중 비구니 선원은 32곳이고, 700여명의 비구니들이 안거에 들고 있다. 기본교육기관(지방승가대학, 중앙승가대학교, 동국대학교, 기초선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인 수는 비구와

역직 종무원 이상의 자격은 거의 다 비구에 한정되고, 전체 비구니의 종무행정 참여나 교단내 지위는 미미한 실정이다. 조계종 중앙총회의 비구니 총회의원이 총 81명중 10명인 것이 단적인 예다. 근래 들어 비구니들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두드러지면서, 비구니의 현실적 열망에 걸맞는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비구니계에 사키아디타 회의에 처

선원 32곳... 보문종 포함 총 7천명 2회 방콕대회 때부터 대표 파견

사미를 합해서 850여명, 비구니와 사미니는 900여명에 달한다. 이외에 전문교육기관(대학원, 울림, 학림)에서 정진하거나 종무행정, 사회봉사(70여개 복지기관)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이처럼 한국 비구니는 여타 불교국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수행과 의식, 종무활동을 비구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비구니가 각 분야에서 수행과 교화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구에 비해 차등적이고 제한되는 면이 적지 않다. 종단기구의 주요 교

을 참가한 것은 1991년 10월 25~29일까지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다양성과 통일'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2차 대회부터였다. 당시 전국비구니회 회장이었던 고(故) 해춘 스님과 묘연 스님, 상목 스님, 현주 스님, 일연 스님, 대우 스님 등 비구니계 원로 및 종진 스님들이 참석했다. 이후 전국비구니회를 중심으로 매해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 비구니 승단을 소개하고, 비구니 계단이 없는 나라의 비구니 계통 전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kim@buddhapia.com

주요 여성불교 사이트

■ 티베트여성협회의 친구들
티베트여성협회(The Tibetan Women's Association, 이하 TWA)는 1959년 4월 12일 티베트 라사에서 중국의 티베트에 대한 불법적인 점령에 항거하기 위해 수천명의 티베트 여성들이 결성했다. 당시 포탈라궁 밖에서 평화적인 항의 시위를 벌이던 수많은 여성들은 중국 군인들에 의해 야만적인 취급을 받았으며 또한 상당수의 여성들은 재판도 없이 투옥되어 비참하게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그 뒤 1984년 해외에 망명중인 수많은 티베트 여성들에 의해 정식

으로 재조직되었으며, 인도 및 네팔 등 해외에 36개 지원을 두고 있다. TWA는 티베트 고유의 종교와 문화, 그리고 티베트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설립 목적으로는 △티베트 및 망명중 있는 티베트 여성들의 사회적-정치적 권익 획득 △교육 출판 등을 통한 티베트 문화전통의 보전과 이해 증진 △후원회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과 어린이, 스님, 노약자들에 대한 구호활동 △평화와 정의 실현을 위해 세계 여성들과의 연대 활동 등이 있다. 주소 = <http://www.fotwa.org/>

■ 불교여성운동
'불교여성운동(Women Active in Buddhism)' 사이트는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홍보하고 호소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이들 중에는 지난 9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지여사, 스리랑카의 여성불자위원회 회장 찬드라야사 등 사회운동가들의 동정과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이외에도 티베트의 비구니스님을 지원해주는 '나르츠마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인 여성불자 줄리아 밀본이


인터넷에서 우수한 정보를 제공하는 불교 홈페이지를 선정, 수여하는 '달마링'을 받기도 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는 △여성불자수계식 및 캠페인 △유명한 여성불자 △경전 속의 여성 등이 있다. 또한 △'상좌부 여성 작가'에서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불자들의 이름과 작품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부처님의 여성성'에서는 티베트불교계의 여러 불상과 탱화 중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을 소개하고 있다. 주소 = <http://members.tripod.com/~Lhamo/>

■ 세계의 여성 불교인
'세계의 여성불교인'은 영국의 랭카스터대학에서 최근 개설한 사이트로 비구니스님, 학자, 수행인, 사회운동가로서 동시대의 여성을 이끌고 있는 여성불자들의 프로필과 최근 동정을 상세히 게재하고 있다. 현재 이 사이트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인물정보는 세계각국의 총 26명이다. 이 중에서 지난 9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지(미안마), 탁남

한스님(베트남)의 제자이며 불교환경운동에 적극 활동하고 있는 조안 헤리렉스(미국), 사회비평가로서 인종과 여성문제에 큰 활동을 보이고 있는 벨 훅스(영국) 등이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도 이 사이트는 '불교와 여성'이란 메뉴를 통해 각국에서 개최된 여성관련 학술 및 사회운동들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주소 = <http://lhamo.tripod.com/1activ.htm>

■ 티베트 여성 수행센터
'티베트 여성 수행센터'는 영국 출신의 티베트 비구니 스님인 텐진 팔모 스님이 이끄는 여성 및 비구니를 위한 수행센터다. 1999년 인도 북부 히말라야 지역에 동구 갓살 링 사원을 창건한 텐진 팔모스님은 네팔, 티베트, 인도지역에서 온 여성들을 지지, 영적으로 교육시켜 우수한 비구니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교사와 책 등 교육조건이 빈약한 이 지역의 여성들과 비구니들은 사원이나 가정에서 하인처럼 일만해 교육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텐진 팔모스님은 이들에게 불교 철학과 수행, 티베트어, 의식, 영어 등을 공부시켜 불교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전통적인 교사와 책 등 교육조건이 빈약한 이 지역의 여성들과 비구니들은 사원이나 가정에서 하인처럼 일만해 교육받을




자비의 등불 지혜의 등불

한결 같지만 늘 새로운 부처님의 가르침!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이 수행 아닌 게 없다는 가르침은 학문의 세계에서 또한 다를 바 없습니다. 자비와 지혜의 자기완성을 꾀하는 인본주의 가르침, 마스하고 밝은 사회를 건설하려는 교육정신이 동국대학교에 있습니다.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대학 -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www.dongguk.edu

학교법인동국학원 이사장 오록원
동국대학교 총장 송석구



이 땅 불교의 밝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3년 연속 취업률 80% 이상 달성(교육인적자원부)
- IT 특성화대학 선정(정보통신부)
-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대학교육협의회)
- 대학재정지원평가 우수대학(교육인적자원부)

원동해관중심대학
위덕대학교
UIDUK UNIVERSITY

780-713,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림리 산 50 / TEL. (054)760-1114 / FAX. (054)760-1069 www.uiduk.ac.kr